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0년 9월 제 **112**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코로나’로 숨죽인 쪽방촌에 건네는 작은 나눔”

진료시간 단축되고 급식도 중지돼 빈곤층 어려움 가중



“요셉의원 분들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매번 간식을 나눠주니 너무 감사지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야지 안 그러면 가끔 뵈던 의사 선생님 얼굴마저 잊어버리겠어요.”

본원에 자주 들르는 쪽방촌 주민 김옥자 씨(70)는 “담당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못 받아도 약은 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본원도 얼마 전 단축 진료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던 지난 8



쪽방 나눔을 나가기에 앞서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본원 직원과 봉사자 및 신학생들(사진 위). 쪽방촌 주민들은 한두 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사진 아래).

월 21일부터 진료시간을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 진료만 실시하다 지난 11일에는 이를 29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의 휴원과 단축 진료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진료시간이 줄어들자 본원을 자주 찾던 환자들은

신경정신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등의 전문 진료를 받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본원에서는 이런 환자 가운데 투약이 필요한 이들을 위



112호
주요
소식



1

본원 쪽방촌 나눔 활동



6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8

병원 소식



9

봉사자 코너



10

후원의 손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던 급식소 두 곳도 문을 닫았다. 본원에서는 2주일에 한 번씩 쪽방동네를 돌며 간식을 나눔하고 안부를 묻는 외부지원 활동을 강화했다.

해 내과의료진이 해당 환자의 의료기록을 참조해 약을 처방해 주고 있다.

신완식 본원 의무원장은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낮 진료 때 수고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펴 약 처방을 하고,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상급 병원과 협조해 신속하게 전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급식소 두 곳도 문 닫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이곳 쪽방촌에서 매일 점심식사 등을 나눠주던 급식소 두 곳도 문을 닫았다. 본원에서는 진료 시간도 줄어들고 쪽방동네 급식까지 중단되면서 외부 지원활동을 좀 더 강화했다. 주변 쪽방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해 본원 사회사업실을 중심으로 300여 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살펴보고, 2주일에



본원에 현장 체험을 나온 신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쪽방 나눔에 동참해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한 번씩 직원과 봉사자들이 햇반이나 두유 등 간식을 마련해 나눔을 하고 있다.

김순점 본원 사회사업실장은 “쪽방나눔은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인데, 코로나 사태로 진료나 급식 활동이 줄어들면서 방문 횟수와 대상 가구 수를 좀 더 늘렸다”고 밝혔다.

“쪽방나눔은 음식물 등을 나눔하면서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주민들의 건강 상태 파악도 중요시 합니다. 쪽방촌 주민 중에는 혈압 약이나 당뇨약 등을 꾸준히 타 가는 분도 있으나, 아픈데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병원에 오시라고 권하고, 외상이 있

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다시 찾아가서 약을 전달하거나 소독과 드레싱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겨울 쪽방나눔을 하다 70대 남성 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도 못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환자는 누워만 있다 보니 꼬리뼈 부분에 피부가 파이는 욕창도 생겼다. 김 실장은 이튿날 직접 찾아가서 상처를 돌보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간호사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김 실장이 얼마 전까지도 간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 7월에는 본원에 봉사를 나온 외과전문의와 함께 환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K모 씨라는 60대 환자 분인데, 다리가 통통 부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마침 이 환자가 집 밖에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외과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환자를 만나봤어요. 의사선생님이 ‘치료를 안 하면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는 진단을 하셔서 119를 불러 큰 병원으로 전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추천했습니다.”

김 실장은 “집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좁은 방에 온갖 쓰레기 같은 짐들이 가득 차서 누워서 잘 공간조차 없었다”며, “앉아서 자다 보니 다리가 붓게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환자가 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인접 교회 사람들이 환자의 방을 정리했다. 그랬더니 필요 없는 쓰레기가 100리터 짜리 봉투로 20개 가까이 나왔다는 것. 게다가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구제하는데 2~3일이나 걸렸다고 한다.

섬처럼 소외된 열악한 환경

위 K씨의 사례는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쪽방촌의 생활 환경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곳 영등포역 부근 쪽방촌에는 약 300세대의 주민이 한 두평 남짓한 방에 몇 가지 가재도구를 갖춰놓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으나 변변한 공동 목욕실조차 없는 곳도 있어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본원에서는 진료 이외에 목욕실을 가동하고, 옷과 신발 제공, 법률상담이나 음악 치료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인 등을 돕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프로그램이 보류된 상태다.

문상운 본원 사회사업실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파악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 10명 중 7~8명은 가족 중에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고, 전체의 60% 정도는 한 해 동안 방문객이 전혀 없었다”고 전하고, “지역적으로 도시의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데다 엄청난 사회적 고립감이 이들을 ‘섬’처럼 소외시키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상담코너를 두고 이런 소외된 이들이 처한 상황을 확인한 뒤 말소된 주민등록 회복이나 수급 신청 돕기 등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스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기회 필요

장애인 등 소외된 이들의 상담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본원 사회사업실의 민 루이제 수녀는 현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쪽방촌을 수시로 돌면서 주민들의 근황을 묻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본원에서는 햇반이나 두유, 구운 계란 등 비교적 상할 염려가 적은 간식을 마련해 쪽방동네에 전달하고 있다. 쪽방나눔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게 더 큰 목적이다.

민 수녀는 “우리 이웃이라는 입장에서 쪽방촌 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 계속 살펴본다”고 말하고, “쪽방주민 이외에 노숙인들과도 만나서 더러워진 마스크를 갈아주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전했다.

얼마 전에는 한 쪽방촌 여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10년 전에 받은 자궁암과 대장암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다리가 꼬끼리처럼 부어있었다. 더욱이 무릎 수술도 여러 번을 받아 병원에 걸어들 수가 없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병원 진료가 단축됐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 내과 봉사의의 처방을 받아 약을 전달했다.

“하루에 보통 대여섯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 이 분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대화를 통해 작으나마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매일 매일의 조금만 만남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 수녀는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면 누구와 따스한 말 한마디 나뉘을까 하는 염려도 든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고 어떤 계산 없이 만남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진 이웃, 나눔 통해 좀 더 가깝게

쪽방나눔이나 동네 방문을 할 때는 대개 본원에 현장체험을 나온 신학생들과 함께 찾아간다. 3개 조로 나뉜 간식을 운반하는 노력 봉사에도 신학생들은 큰 힘이 된다. 김 실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지 못 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학생들에게는 쪽방나눔이 중요한 현장체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인 김석우(스테파노) 신학생은 “처음 쪽방촌 방문을 해보니 좁디 좁은 방안의 열기와 냄새가 사람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바퀴벌레도 많고 버티기 힘든 이



쪽방 주민 10명 중 6~7명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 달에 40만~70여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위면적 당 방세가 강남보다도 높은 월 23만~35만원 정도여서 실제 가용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진 오른쪽은 본원에서 조별로 쪽방 나눔을 나가는 구역을 표시한 지도.

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간식 등을 전달하면 엄청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서 그냥 전달하기만 한 우리 마음이 찡했습니다. 한 두 달 지내다 보니 일부 쪽방주민들이 수급비 받으면 술판 벌이고 경마 등으로 탕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누구나처럼 열심히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김석우 신학생은 “개인에게는 가정 교육이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가난하



쪽방촌 향기

“너희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은 2018년 가을이지만, 영등포의 이 작은 병원을 찾은 것은 그보다 한참 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요셉의원에서 의무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최영아 선생님을 통해 요셉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영아 선생님은 저에게 학교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로서 참 소중한 분이라,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최 선생님이 부탁하시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찾았던 요셉의원의 분위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영등포 뒷골목이라는 위치적 특수성과는 달리 단정하게 동그마니 자리 잡은 병원은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요셉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정신과의 사 모임이라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임에 간간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채정호 교수님께서 요셉의원에



문지현

정신건강의학과 봉사의

정신과 의사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미 채 교수님이 요셉의원에서 오랜 시간 섬기셨다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바쁘는데 진료 봉사를 나가?’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요셉의원에서, 저는 또 다른 분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정신과 환자분들이지요. 노숙인의 1/3 정도는 정신질환자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

습니다. 그런 통계에 비해 본다면 아직까지 적은 수의 분들이 병원을 찾지만, 요셉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일 테고, 그분들 역시 요셉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도움을 받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요셉의원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병원답게, 딱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최적의 구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제 진료실에서라면 이



본원 사회사업실 보관함에 넣어 놓은 컵밥과 죽 등의 간식. 필요한 환자가 요청하거나 쪽방 나눔 때 활용한다.

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9월 중순인 지금, 보름 정도 있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는다. 예전 같았으면 추석 때 고향에 가지 못하는 많은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을 위해 후원자들의 정성이 담긴 나름의 ‘푸짐한’ 선물을 나눔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은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김 실장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쪽방나눔은 식료품과 생활



쪽방 나눔을 나가기 전에 햇반과 컵밥, 죽 등의 식품을 종류별로 나눠 꾸러미를 만들고 있다.

용품 등을 담은 추석 선물을 꾸러 본원 전 직원이 쪽방촌 300세대를 모두 방문해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날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진 이웃들과 좀 더 가깝게 얼굴을 마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6:20).
요셉의원에 오면 그분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것저것 검사도 해보고, 약도 다양하게 써보고 하겠지만 요셉의원에서는 그런 시도를 해볼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도구들이 없는 만큼, 제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다행히 일찍 진단이 되어서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해오고 있는 정신증 환자분들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금방 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발하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보면 제 가슴이 다 답답할 지경입니다.

온갖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서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병임을 이미 알고 오는 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약을 많이 먹어야만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더욱 걱정이 치밀니다. 술에 절어 살다시피 하다가 ‘이제 한번 끊어보자!’고 호기롭게 결심했다가 알코올 금단 현상으로 인해 잠 못 자고 온 몸에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에, 식은땀 흘려가며 오신 분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요셉의원에 오기 시작했지만, 어차피 항상 해오던 진료의 연장이라서 딱히 ‘봉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러 왔

다고 말하기에는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조그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6:20). 요셉의원에 오면 그분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드리는 약 몇 알, 노숙인 또는 가난한 분들이라고 내려다보지 않는 시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위로와 희망을 나누기를 바라며 드리는 몇 마디의 말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자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저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제가 그들과 함께 있도록 보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가난한 자들이 저와 함께 있는지, 또한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부유한 사람인지는 주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2020.07~2020.09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코로나19 사태 필리핀 현지통신

장경근 |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신부 |

일거리 떨어지자 생계 위해 아이들이 장사 나서

지난 몇 달 동안 필리핀은 마닐라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봉쇄 조치를 취했다. 사람들의 왕래를 줄이고 외출을 금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고, 9월 현재 총 감염자는 28만 명에 이른다.

봉쇄 조치로 인해 수많은 상점과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실업률은 현재 50%에 이른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했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했다.

나라 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봉쇄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바이러스 차단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없어진 일자리와 무너진 경제 상황은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듯이 그리 쉽게 되살아나진 않는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파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다.

요즘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예전에 없었던 광경을 목격한다. 8~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탕과 비스킷을 팔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가끔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물건 팔러 다니는 것을 봤었지만 이처럼 어리진 않았다. 한번은 그 아이들 집을 따라가 본 적이 있었다. 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화도

나고 궁금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쓰러져 가는 집 안에 갇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에게 벌이가 없어지니 당장 집에 쌀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장사를 하며, 쓰레기장에서 플라스틱을 줍는 일이 발생한다

식료품 티켓에 얽힌 아쉬움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한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던 의료봉사팀들의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의료지원보다는 계속해서 식료품 지원에 힘쓰고 있다. 먼저 지역 마을을 방문해 티켓을 나눠주고 지정된 장소에서 쌀과 통조림, 그리고



지역 마을을 방문해 티켓을 나눠주고 있다(사진 위). 티켓으로 식료품을 받아가는 주민들(사진 아래)

라면 등을 교환해 주는 형식이다. 안타깝게도 티켓을 못 받고 찾아와서 무작정 식료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번에 200~300명 정도 정해진 수만큼 배분되는데 혹시나 남은 것이 있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티켓을 받은 사람이면 1명도 빠짐 없이 다 받으러 나온다. 그렇게 매번 기다리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계속 마음이 아프다.

어린이 급식 위해 뒤뜰에 텃밭 마련

본원에서는 또한 3개 마을 어린이 급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 24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 급식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 중에는 이 점심이 끼니의 전부인 아이들도 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양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선 아이들. 이들 중에는 사탕을 파는 아이들(사진 왼쪽)과 숯을 만들어 파는 아이들도 있다(사진 오른쪽).



텃밭에서 청경채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 텃밭 한 편의 가지밭에는 가지가 잘 자라고 있다(사진 오른쪽). 이 농작물들은 무료 급식소의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있는 음식을 만들까 고민한다.

그리하여 지난 5월부터 뒤뜰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다. 마침 필리핀 북부에서 유기농 사업을 하고 계신 배다(외방선교회) 신부님이 방문하여, 농작물 재배법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의욕만큼 쉽지가 않았다. 비와 강한 바람으로 감자, 오이, 고추, 양파 재배에 실패했으나, 다행히 가지, 토마토, 당근, 청경채는 잘 자라고 있다. 지난 주에 처음으로 청경채와 가지를 수확하여 무료 급식소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수고와 경제성을 따지면 차라리 사 먹는 것이 여러 배 낫지만, 그래도 유기농이라는 자부심으로 점점 확장이 나가고 있다.

뇌종양 어린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세례 베풀어

지난 2018년 11월 우리나라 가톨릭의료협회에서 나온 의료봉사 중 질병이 발견된 카타모라(4세, Catamora Richad, Jr) 어린이가 필리핀 요셉의원의 의료비 후원으로 작년 8월 뇌종양 수술(hemangioblastoma)을 받았었다.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앞도 잘 안 보이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도 받아 많이 힘들었다. 그 와중에도 초코파이를 건

네주면 '고맙습니다' 하며 엄마에게 먼저 먹으라고 건넨 아이였는데, 지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가 죽기 전 어머니의 소원은 '세례'였다. 눈물을 머금고 세례를 주며, '성모님의 인도로 하느님께서 이 천사를 당신 품에 편히 쉬게 하려는 것 같다'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의 소원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카타모라 어린이.

어깨 종양 환자 수술 성공적

작년 11월 우리나라 가톨릭대 의대 동문회 의료봉사 진료 때 병을 발견한 아날리사(Annaliza · 38)가 드디어 지난 8월 3일 바보나눔 재단 후원으로 어깨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작년부터 계속 수술을 위한 검사와 수술 날짜를 모색해 오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술이 취소되고, 부위도 점점 커져서 걱정이 되던 상태였다. 새로운 담당 의사는



수술 전 안수기도를 받고 있는 아날리사 씨.

다행히 폐로 전이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왼쪽 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환자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philip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2020년 7~8월 신규 후원회원 명단(총 10명)

♥ 김성호 ♥ 김성현 ♥ 김하영 ♥ 박경은 ♥ 박경희
♥ 백선휘 ♥ 백승곤 ♥ 심주엽 ♥ 이희숙 ♥ 한은경

+ 2020년 7~8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코로나19로 진료 중단, 약 처방(386명)만 진행
♥ 급식 8,718명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 (2020년 8월 현재)

♥ 진료 80,625명 ♥ 급식 324,018명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4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요셉의원소식

개원 33주년 미사 봉헌

본원 직원과 봉사자들은 개원 3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8일 본원 3층 경당에서 조해봉 원장신부의 주례로 조출한 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본원은 여러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은혜에 힘입어 개원 이후 누적 환자 수가 9월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후원자 수는 1만3000여명, 정기 후원자 수는 3400여명을 기록하게 됐다.



조 원장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요셉의원이 33주년이란 긴 시간을 이어오고, 또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요셉의원의 존재 의미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나눈다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축복 또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타민엔젤스, 마스크 2000장 기부

‘비타민 엔젤스’ 김바울 대표(사진 가운데)가 지난 7월 31일 본원을 방문해 마스크



2000장을 기부했다. 2013년에 출범한 사회적 기업인 비타민엔젤스는 비타민 한 통을 팔면 한 통을 기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본원과 필리핀요셉의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 비타민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대표는 “먼저 후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대개 판매한 양보다 기부한 양이 더 많다”며, “다소 힘들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란 취지에 걸맞게 후원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여약사위원회, 후원금 전달



대한약사회 서울지부 여약사위원회(부부장 장현진, 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8월 7일 본원을 방문해 신안식 의료원장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장현진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진료에 헌

신하는 요셉의원이 있어 든든하다”며, “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장품 회사 ‘톤28’ 기부금과 손 세정제 전달

화장품 회사 ‘톤28’에서 지난 9월 18일 본원에 자사 손 세정제 50개를 보내왔다. 톤28의 박준수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때, 병원을 찾는 환자와 봉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자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톤28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1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본원 후원금 자동이체(CMS)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매월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웰킵스, 기부 캠페인 통해 마스크 후원

국내 마스크 시장 점유율 선두그룹의 하나인 웰킵스(대표 박종한)가 지난 8월 15일 ‘웰킵스와 함께 815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전정숙님의 추천으로 본원에도 마스크 915장을 기부했다. 웰킵스 관계자는 본원을 비롯해 선정된 병원과 군부대, 재해구호협회, 소방서, 경찰서, 학교, 환경미화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호기관, 유기견보호소 등 마스크가 필요한 100군데에 10만 장을 모두 기증했다고 밝혔다.





봉사자 코너

환자 상담 지원하는 김경선 봉사자

“삶에서 깨닫는 감사함을 봉사로 대신합니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 일주일 한 번씩 환자 상담을 돕고 있는 김경선 봉사자(50)는 아들도 본원에서 목요나눔 배식

봉사에 참여케 하는 등 봉사가 갖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남편과도 그런 점에서 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 삶에서 느끼는 감사함을 봉사로 표현하고, 봉사할 시간이 없으면 후원이나 기부로 대신하자고 말합니다.”

2017년 본원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한 김 봉사자는 5년 전 동작구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간 장애인 점자책 제작 과정에 참여해 오자 수정 등의 봉사를 한 적이 있다. 또 그 이후에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다가 서울역 부근의 노숙인 식사 제공처에서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1년 반 정도 했다.

“그때 아들도 데리고 가서 배식과 설거지 등을 함께 했어요. 당시의 경험을 살려 요셉의원 목요나눔 배식봉사에 도 혼자 참여해 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도본동 성당에서 제대회와 첫영성체 교리교사도 하고 있는 김 봉사자는 교리 시간에 가끔 아들 봉사 얘기를 들려주며 남을 돕는 의미를 전해주기도 한다는 것. 지금은 아들이 고교 3학년이어서 봉사활동을 못 한다. 그러자 김 봉사자는 아들 용돈에서 1만원을 떼어 본인 이름으로 본원에 후원을 하도록 했다.

김 봉사자는 “아들이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 봉사가 바로 산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은 남편도 마찬가지다. 10년 전 사업을 시작하는 남편에게 봉사를 못 하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라도 하자고 얘기하자 아프리카와 북한 등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몇 군데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김 봉사자는 자연 환경 보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여건이 되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앞으로 재활용 물품센터 같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을 해볼 생각”이라며, “환경 보호와 소외된 이들의 고용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자 스토리

IMF 환란 이후 고된 삶 살아온 이영기 씨

“며느리에게는 잘 살라는 말 전하고 싶어요”



“올해 안에는 요셉의원 도움을 받아서 틀니도 하고, 한 동안 못 만났던 누님 두 분도 뵙고 싶습니다.”

영등포 쪽방동네에 사는 이영기 씨(가명·65)는 이런 저런 굴곡진 삶을 살아오며 가족들과 소원하게 생

활해 왔으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며느리 얼굴도 한 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졸 출신인 이 씨는 무료급식소에서 주방 봉사도 하고, 본원 진료 방침에도 잘 협조하는 ‘모범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울 만리동에서 태어난 이씨는 목수 일을 하던 아버지의 재주를 물려받았는지 인천기술고에서 배운 전자 기술을 마다하고 나전칠기, 뿔뚜기 시계 제작, 가구 제작 등 주로 목공 일과 가구 사업 등을 해왔다.

“친구와 함께 10여년 목공 사업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나갔지요. 그런데 IMF 환란이 터지면서 거래처에서 받

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황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첫 부인과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했으나 아내가 급전 사채를 여기 저기서 빌려쓰고는 갚지를 못하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한 동안 빚쟁이들을 피해다니다 결국 집까지 팔고 이곳 저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재혼한 부인도 떠났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고 할까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을 찾아서 냉동 배달 탑차 기사도 해보고, 실내 포장마차 일도 도와주다 막노동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당시는 건설 막노동 중 아파트 기초공사 설비를 철거하는 일이 단가가 높았다. 여의도에 한창 건설 바람이 불 때 영등포 쪽으로 와서 60세가 될 때까지 10년 정도 이 일을 했다.

“5, 6년 전 철거 일을 그만두고 얼마 안돼 시장에서 자전

거를 타고 가다 술 취한 사람과 부딪혀 넘어졌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군요. 요셉의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대퇴골두가 골절됐다는 거예요. 요셉의원에서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시켜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요셉의원에 10년 넘게 다니면서 혈압약도 타고 앞으로 부분 틀니도 할 예정이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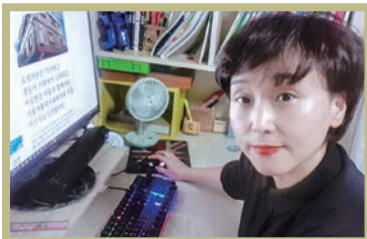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이 씨는 아들이 재혼한 어머니를 떠나와 한 동안 함께 산 적이 있다. 이 씨는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훌쩍 떠나간 아들 녀석이 밍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언젠가는 머느리 손을 잡고 잘 살라는 격려라도 해주고 싶다”며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후원의 손길

인터넷 영상 보고 홍보 활동 편 김미나 후원자

“무료 진료 한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대도시에서 무일푼인 노숙인 등을 무료 진료해 주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9월 초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세 아이의 어머니인 김미나 씨(47)는 본원 후원회에 전화를 걸어 정기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원인 네이버 ‘송파맘들 오세요’ 카페에 요셉의원에 관한 소식을 알렸더니 많은 분들

이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어떤 회원들은 ‘남편이 요셉의원에서 3년 간 봉사를 했다’, ‘학생 때 그 곳에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얘기를 들려주더라고 전했다.

“2016년에 어떤 카페에서 요셉의원에 관한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으나 큰 관심을 갖지 못하다 이번에 인터넷에서 요셉의원 관련 영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을 하기로 했고, 송파맘 카페에도 요셉의원 홍보 글을 올렸지요.”

김 후원자는 송파맘카페에 본원 초대 원장인 선우 경식 원장에 관한 글을 캡처해 올리고 후원에 동참하자는 얘기를 하자 많은 회원들이 호응을 했다고 전했다.

“후원이나 기부도 사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대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0년 7월~8월)

♥ UK ONLINE GIVING FOU ♥ 강나윤 ♥ 강미리 ♥ 강선옥 ♥ 강성탁 ♥ 고현수 ♥ 구혜경 ♥ 권용미 ♥ 김가현 ♥ 김강석 ♥ 김무승 ♥ 김상미 ♥ 김선주 ♥ 김소정 ♥ 김수정 ♥ 김수현 ♥ 김승호 ♥ 김연진 ♥ 김연희 ♥ 김영식 ♥ 김영철 ♥ 김유라 ♥ 김재원 ♥ 김정우 ♥ 김정인 ♥ 김태영 ♥ 김택선 ♥ 나효순 ♥ 단명호 ♥ 문성진 ♥ 문지영 ♥ 문지원 ♥ 박영임 ♥ 박정인 ♥ 박진 ♥ 박해나





♥ 박현목 · 우진혜 ♥ 배원영 ♥ 배호영 ♥ 변유석 ♥ 송연심데레사 ♥ 송영미 ♥ 송정원 ♥ 송진희 ♥ 신대륜 ♥ 심윤식요한보스코 ♥ 안젤라
♥ 오순영 ♥ 오현자루피나 ♥ 원세훈 ♥ 유용백 ♥ 유정화 ♥ 유해영 ♥ 윤무순 ♥ 윤상순 ♥ 윤현수 ♥ 이래숙 ♥ 이미정 ♥ 이미현 ♥ 이성운
♥ 이시화 ♥ 이연경 ♥ 이용현 ♥ 이유진 ♥ 이재인 ♥ 이 정 ♥ 이지우 ♥ 이창훈
♥ 이채윤 ♥ 이태균 ♥ 이해윤 ♥ 장창오 ♥ 정영순 ♥ 정은주 ♥ 정진원 ♥ 조득제
♥ 조상현 ♥ 조윤진 ♥ 채지은 ♥ 최광식 ♥ 최두철 ♥ 최서연 ♥ 타로님 ♥ 허진영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0년 7월~8월)

♥ 미성물산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0년 7월~8월)



♥ 김응서 : 다시마 1상자 ♥ 김지영 : 생수 6상자 ♥ 김해진 : 케이크 2개, 고추 1팩
♥ 김현숙(봉금의들) : 감자 1상자 ♥ 김현정 : 옥수수 1상자 ♥ 리온트레이딩 : 두유 2
상자 ♥ 목5동성당 : 쌀 240kg ♥ 백수관 : 감자 14상자 ♥ 안규향 : 김치 3상자
♥ 윤호중 : 삼계탕 35개 ♥ 이레우리밀 : 빵 8상자 ♥ 착한과일 : 자두 2상자
♥ 최성은 : 쌀 1상자 ♥ 최수연 : 쌀 40kg ♥ 한울타리공동체 : 빵 4상자, 두유 2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0년 7월~8월)

♥ 김강호 : 옷 1상자 ♥ 김건환 : 옷 1상자 ♥ 대방동성당 : 의류 4상자 ♥ 목5동성당 : 신발
4상자 ♥ 박광현 : 옷 5상자, 신발 2상자 ♥ 박은경 : 옷 4상자 ♥ 양은희 : 옷 3상자
♥ 유현아 : 옷 1상자 ♥ 이현주 : 옷 2상자 ♥ 이희수 수사 : 옷 2상자 ♥ 익명 : 옷 3상자
♥ 주경수 : 옷 1상자 ♥ 최 봄 : 옷 1상자 ♥ 최성은 : 옷 1상자 ♥ 하계동성당 : 옷 25상자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0년 7월~8월)

♥ 모니카 재단 : 세로겐 크림 외 1종 ♥ 인간의 대지 : 에미슨 외 1종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3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0년 7월~8월)

♥ 강연달 : 유모차 1대 ♥ 금호덴탈 : 치약 5상자(560개) ♥ 김경식 : 마스크 1상자
♥ 김지영 : 마스크 250개 ♥ 김진숙 : 에어컨 1대 ♥ 문세용·제용 : 마스크 1상자
♥ 박은경 : 일반잡화 2상자 ♥ 비타민엔젤스 : 마스크 2000개 ♥ 송은숙 : 비누 2상
자 ♥ 영등포병원 : 마스크 300개 ♥ 익명 : 잡화 1상자 ♥ 종로BYC : 마스크 2000개
♥ (주)더스마티애니원 : 마스크 1상자 ♥ 최성은 : 잡화 1상자, 문구류 1상자
♥ 허마리아 : 선풍기 2대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나오신 분

- 방사선사 : 임고은
- 신학생 현장체험 :



-8월 31일 ~ 12월 18일

광주대교구 황인수(안드레아)
김해솔(시몬)
이명훈(안토니오)

-9월 21일 ~ 12월 20일

서울대교구 권순호(비오)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 밤바
- ♥ 살레시오수도회
- ♥ 안산 빈센트의원
- ♥ 요셉의집
- ♥ 정승혜
- ♥ 쪽방나눔(누계 450 가구)
- ♥ 최홍석
- ♥ 토마스의 집
- ♥ 한울타리공동체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0년 7월	1,170명
2020년 8월	703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2020년 8월 말 현재)

699,973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복이 완전해지도록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 집회서 7, 32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코올중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josephclinic@daum.net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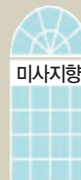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